

國語 超分節音의 通時態와 共時態 (I)

金 永 萬*

< 목 차 >

- I. 序論 : 國語 超分節音韻論의 淵源
- II. 音長論
- III. 崔鉉培의 長短-高低論
- IV. “聲調”論
- V. 중간 맺음
- VI. 附錄

<Abstract>

The diachrony and synchrony of Korean suprasegmentals

Kim, Young-Man

1. It is assumed that Ancient Korean had features of pitch and duration as well as three suprasegmental phonemes. But the details are unknown to us.
2. Middle Korean(MK) has three suprasegmental phoneme(SSP)s and their features are:

Notations of SSP	Representative Words	Markings	Examples of Presentation	Assumed Features
0 (平聲)	k'och 'flower'	0 dot	꽃/koc/	[High -Long]
I (去聲)	phul 'grass'	1 dot	·플/phul/	[-High -Long]
II (上聲)	pyel 'star'	2 dots	:별/pyel/	[-High +Long]

* 전 영남대학교 교수

MK SSP's change by phonological obligatory rules as follows :

- (1) Π changes to I at the second syllable or below.
- (2) θ changes to I after I or Π .

Polysyllabic words of MK have three SSP patterns:

- (1) θ -type : $\theta_1 I_0$. (2) I -type : I_1 . (3) Π -type : ΠI_0 .

3. Three SSPs of Kyungbuk dialect and relevant MK SSPs are:

- (1) $O[-\text{Long}, +\text{High}]$ from θ of MK ex. *k'och* 'flower'
- (2) $U[-\text{Long}, -\text{High}]$ from I of MK ex. *phul* 'grass'
- (3) $W[+\text{Long}, -\text{High}]$ from Π of MK ex. *pyei* 'star'

Phonological rules of SSP of Kyungbuk dialect:

- (1) W changes to U at the second syllable or below.
- (2) O changes to U after U or W .

In polysyllabic words $/O/$ and $/U/$ have 2 phonetic allophones respectively.

- (1) phoneme $/O/$ has two allophones $[O]$ and $[o]$.
- (2) phoneme $/U/$ has two allophones $[U]$ and $[u]$.

Phonetic rules for $/O/$ and $/U/$:

- (1) O changes to $[o]$ before O .
- (2) U changes to $[u]$ after O or at the third syllable or below.

Kyungbuk dialect has three SSP patterns:

- (1) O -type : $O_1 U_0$. (2) U -type : U_1 . (3) W -type : WU_0 .

I. 序論 : 국어 超分節音韻論의 淵源

音韻論(음운론)의 연구 대상은 크게 나누어 分節音과 超分節音(초분절음)이다. 子音, 母音 등등은 分節音이고, 高低, 長短, 強弱 등등은 超分節音이다. 分節音을 다루는 音韻論을 分節音韻論이라고 한다면 超分節音을 다루는 音韻論을 超分節音韻論(the phonology of suprasegmentals)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의 超分節音에 대한 연구는 <訓民正音> '例義'의 끝에

(1)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¹⁾(왼쪽에 한 점을 찍으면 去聲이고 두 점을 찍으면 上聲이고 점이 없으면 平聲이다. 入聲은 점 찍는 것은 여느 것과 같으나 소리가 促急(촉급)하다)

라 한 것과 東國正韻 序文에서,

(2) 語音則四聲甚明 字音則上去無別(고유어의 말소리에는 四聲이 아주 분명한데 漢字音에서는 上聲과 去聲의 구별이 없다)²⁾

라 한 것에서 압축적으로 표현된다. 15세기에 世宗을 비롯한 訓民正音 창제 당시의 학자들은 이미 15세기 超分節素(초분절소)의 전모를 확실히 파악하여 그것을 문헌상 聲點 또는 傍點(방점)이라는 기호로 나타내기까지 하였지만,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세우지는 않고 중국 聲韻學(성운학)의 理論 체계와 用語를 빌려서 기술하였다.

그들은 당시의 國語에도 中國의 四聲에 해당하는 것이 있음을 알고, 우리

-
- 1) '促急(촉급)'은 終聲이 'ㄱ, ㄷ, ㅂ'과 같은 無聲 閉鎖音(폐쇄음)으로 되어 끝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음절을 말하는 것 같다. 이 用語는 中國의 것을 그대로 쓴 것이다. 諺解의 '센르니라'라는 번역을 보고 短音이라는 변별적 자질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 2) 얼른 생각하면 이 말은 모순되는 것 같다. 왜냐 하면, '四聲'이란 漢語(중국어)에서 나온 것인데 고유어에는 四聲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漢字音에 이것이 혼동되었다는 것은 정반대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조금도 모순이 아니고 단지 用語의 혼동이 있을 뿐이다. 첫째로 固有語에서 四聲이 분명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꽃(꽃)'(0점)의 超分節素를 '平聲', '풀(풀)'(1점)의 超分節素는 去聲, '별'(2점)의 그것은 上聲이라 하고, '꽃'은 平聲이면 동시에 'ㅈ'을 終聲으로 가졌으니 入聲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上去無別'이란 말이야말로 우리 漢字音의 超分節音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즉 당시의 漢字音의 실정은 中古漢音의 平聲과 入聲은 우리 말에서 거의 대부분이 뚜렷하게 변별되었지만 上去聲은 변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金永萬, 1967a 참조).

나라 漢字音 超分節音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漢語 원음의 四聲이 우리 음에서는 재편성되어서 세 가지 동아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첫째 동아리는 平聲 동아리로서 平聲은 거의 다 같은 超分節音으로 발음되었는데, 이것은 0점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동아리는 거의 모든 入聲과 上聲 去聲의 일부가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1점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동아리는 上聲과 去聲의 대부분이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2점으로 나타났었다(金永萬, 1967a 참조).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우리 나라 漢字音 超分節素音의 세 동아리

- ㄱ. 0점 동아리 : 平聲
- ㄴ. 1점 동아리 : 入聲, 上聲(일부), 去聲(일부)
- ㄷ. 2점 동아리 : 上聲(대부분), 去聲(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上聲과 去聲이 따로따로 동아리를 이루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각각의 내부에서도 둘로 갈라졌다는 사실이다. 東國正韻 序文의 “字音則上去無別”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上·去聲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上聲과 去聲은 상호간의 구별이 안 될 뿐 아니라, 각자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즉, 上聲도 2점과 1점으로 갈라지고 去聲도 2점과 1점으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上去聲의 일부가 1점이 되고 보니 그것은 또 入聲과도 섞이게 된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漢字 四聲의 國音化 상황

	平聲	----->	0점(95%)
(80%)2점<-----	上聲	----->	1점(15%)
(80%)2점<-----	去聲	----->	1점(15%)
	入聲	----->	1점(95%)

즉, 平聲은 95%가 0점 동아리가 되었으며, 上聲은 80%는 2점 동아리가 되고 15%가 1점 동아리가 되었으며, 去聲도 上聲과 같이 80%는 2점 동아리가

되고 15%가 1점 동아리가 되었으며, 入聲은 95%는 1점 동아리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고유 超分節素 0점, 1점, 2점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命名할지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0점은 다른 경합자가 없으니까 平聲이 차지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점은 入聲과 上聲·去聲이 경합을 벌리고 있지만, 上·去聲은 합쳐도 入聲의 3분의1 밖에 안 되고 入聲은 거의 다 1점이니 入聲이 차지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이 보이지만, 예측과는 달리 入聲은 탈락하여 上聲과 去聲이 1점과 2점을 다 차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1점은 去聲이 차지하고 2점은 上聲이 차지하였다. 즉, 중세 국어의 超分節音素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 것이다.

(5) 국어 超分節素들의 命名

ㄱ. 0점-----→平聲

ㄴ. 1점-----→去聲

ㄷ. 2점-----→上聲

ㄹ. ※入聲은 名目은 있으나 超分節素는 아니다.

이런 超分節音素의 명칭은 訓民正音 제작자들의 哲學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도 中國과 같이 四聲을 구별하는 것을 理想으로 삼았다. 특히 漢字音에서 이것을 구별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入聲은 超分節音이 아니지만 分節音의 차원에서 쉽게 구별된다. 즉 입성은 終聲이 “ㄱ, ㄷ, ㄴ(ㄹ)”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아도 쉽게 식별이 된다. 따라서 入聲을 위한 傍點 기호도 달리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平聲은 다른 것들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0점에 해당하는 것은 平聲이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나머지 1점과 2점은 上聲과 去聲에 하나씩 배당하면 四聲의 구별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1점은 去聲으로, 2점은 上聲으로 命名한 것이다. 이것으로써 世宗(훈민정음 제정자를 대표하는 말로 쓰기로 하자)은 우리말에서 四聲을 구별하는 데 일단 성공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몇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로 우리 漢字音의 현실에서는 上聲과 去聲의 구별이 되지 않는데(上去

無別), 1점을 去聲이라 하고 2점을 上聲이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世宗은 국민들이 1점도 발음할 수 있고 2점도 발음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上聲字는 2점으로, 去聲字는 1점으로 하여 양자를 구별하도록 재교육시켜 이른바 “四聲之變”³⁾을 해결하자는 의도일 것이지만, 2점-去聲, 1점-上聲으로 짝짓지 않고 1점-去聲, 2점-上聲으로 짝지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文之入聲 與去聲相似(漢字의 入聲은 去聲과 같다)”라는 解例의 설명과 관계가 있고,⁴⁾ 우리의 2점이 중국의 上聲과 비슷한 데서 온 것일 수도 있으나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世宗은 우리 固有語의 실태를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이론은 中國의 聲韻學의 체계와 설명 방식, 用語를 이용하려 하였다.

둘째로 平聲-0점, 上聲-2점, 去聲-1점, 入聲-1점과 같은 東國正韻식 방점법 특히 上聲에 2점, 去聲에 1점을 찍은 것은 四聲을 우리의 세 超分節素를 가지고 구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중 入聲은 終聲은 終聲에 의해 구별되니 문제가 없지만 現實音의 대체적인 경향을 보아 平聲은 0점, 入聲은 1점을 찍었다. 그러나 平聲-0점, 入聲-1점도 95%는 사실이지만 去聲에 찍힌 1점은 15%는 맞지만 85%는 맞지 않으니 架空音이다. 上聲에 찍힌 2점도 80%는 현실과 맞지만 20%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東國正韻式 漢字音 傍點의 현실을 반영할⁵⁾

- ㄱ. 平聲=0점 95%
- ㄴ. 上聲=2점 80%
- ㄷ. 去聲=1점 15%

3) 四聲之變은 東國正韻 序文에 나오는 말로, ‘上去無別’ 외에도 入聲 중에 중국의 古代音에서 보면 入聲에서 “質·勿”은 ‘질, 물’과 같이 ‘促急’하게 나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질, 물’로 ‘徐緩’하게 소리나서 入聲의 본질이 변한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4) “文之入聲 與去聲相似”과 관련해서는 東國正韻의 傍點이 去聲과 入聲에 모두 1점을 찍은 것을 해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5) 이러한 반영률은 따지고 보면 무의미한 것이다. 5%의 예외도 그 예외를 찾아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ㄹ. 入聲=1점 95%

요컨대 訓民正音 창제자들은 우리말 超分節素에 대해서도 철저히 實事求是의인 조사를 하였고 독창적인 기호(聲點=傍點)까지 개발했지만 그 理論의들과 用語는 거의 全的으로 중국 聲韻學에 의지했던 것이다. 더구나 東國正韻의 傍點은 무리하게 四聲을 구분하여 現實音과는 상당히 괴리(乖離)되어 있다. 그렇다고 문헌에 적은 방점을 보고 그대로 발음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언어란 언중 일반이 하는 대로 따라야 언어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小學諺解凡例에서는 이것을 지적하여 “若盡用本音이면 有駭俗聽故로(만약 본음대로만 쓴다면 일반인들에게 해괴하게 들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였다. 오늘날 전하는 <訓蒙字會>와 <小學諺解> 그리고 <繙譯小學>에는 <東國正韻>식 방점을 버리고 現實音을 반영하여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中世國語의 현실 超分節音을 알 수 있게 되었다.⁶⁾

그런데 <訓民正音> ‘諺解本’은 原本의 聲點 부분(例義)에 대해서 “平聲, 上聲, 去聲” 등에 대하여 각각 注(四聲注)를 붙여 ‘낮은(뫋갓가쁜) 소리(平聲)’, ‘높은(노픈) 소리(去聲)’, ‘처음 낮고 나중 높은(처서미 뫋갑고 乃終이 노픈) 소리(上聲)’로 풀이하였는데, 이것이 “聲調”가 국어 音韻論에서 각광을 받게 된 단서가 된 것이지만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대 초기의 연구자들은 諺解本을 보지 못하였거나 별로 주의하지 않고 현실음(서울 중심)에 의해 中世國語 超分節音을 논하는 데 있어 서울-中部(중부) 방언을 중심으로 한 音長論이 중심이었으나, 河野六郎(1951), 許雄(1955)이 나오면서 四聲注에 나오는 ‘높은, 낮은’이 국어의 pitch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高低에 대한 논의, “聲調”論이 활발히 일어나게 된 것이다.

II. 音長論

6) 여기 대해서는 金永萬(1967a ; 1987:111-117) 참조.

序論에서 본 바와 같이 15세기의 訓民正音 창제자들은 당시의 국어 超分節音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였으나 이론의 틀과 用語를 전적으로 중국 聲韻學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설명만에 의하여 당시의 超分節音의 실상을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많은 聲點의 자료가 있어도 15-6세기의 超分節音의 實相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筆者가 四聲注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中世國語 超分節音의 실상은 이리하여 世宗과 당시의 學者들 그리고 崔世珍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확실하게 파악되고 있었으나 설명의 토드가 우리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문헌상의 후세에까지 전달되지 못한 채 개화기를 맞았다.

開化期에 들어 池錫永, 周時經, 기타 國文研究所 관계 학자들이 처음으로 15-6세기 文獻의 聲點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토론을 벌인 결과 現代國語 표준어에는 長短만이 있고 高低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中世國語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의 연구 成果로 주목되는 것은 池錫永의 <字典釋要>이다. 池錫永은 字典의 각 漢字 풀이에서 訓釋(國語 단어)이나 音의 표시에서 長音에는 글자의 오른쪽 위[右上隅]에 圈點(권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다만 漢字音에 찍은 圈點은 완전한 現實音의 반영이 아니고 上聲·去聲에 대해서는 무조건 長音 표시(圈點)를 하고 平聲과 入聲에는 短音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漢字에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國語化한 漢字語에 대해서는 現實音대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肉部 3劃(획)의 “肝(平聲)”과 穴部 8劃의 “窟(入聲)”을 보면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 (7) ㄱ. 肝 간' 간 ㄴ. 窟 굴' 굴
 ㄷ. (참고: <訓蒙字會上·身體> 肝 :간 간)

여기서 訓(“天”을 ‘하늘 천’이라 할 때의 ‘하늘’)에 해당하는 “간”과 “굴”은 우리말의 ‘간’과 ‘굴’이 실제로 길게 발음하기 때문에(현대 국어사전 참조) 長

音 표시를 한 것이다. 다만 뒤의 음에 해당하는 ‘간’과 ‘굴’은 실제로는 길게 나더라도 漢字音에서는 平聲과 入聲은 모두 短音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池錫永은 당시 표준어(서울말)에서 長短을 정확히 구분하면서도 長音을 ‘긴소리’라 하지 않고 ‘높은 소리, 높은 字’라 불렀다. 그리고 漢字音에서 上去聲을 長音(‘높은 소리’)으로, 平聲과 入聲을 短音(‘낮은소리’)로 長音으로 처리하였는데 이것은 상당 정도 현실 漢字音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다.⁷⁾ 그러나 上聲과 去聲의 나머지 20%는 짧게 나는데도 千篇一律의 短音 처리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池錫永이 訓(釋)에서는 漢語에서 온 것이라도 현실음을 반영한 것은 訓蒙字會의 그것과 같다. 즉 訓蒙字會에서 肝의 訓에 ‘갸’와 같이 두 점을 찍어 현실음을 반영하였고 그 대신 ‘音’에는 0점을 찍었다. 다만 訓蒙字會의 경우는 ‘音’에도 현실음을 반영했다(金永萬, 1967 참조).

한편 池錫永의 漢字音 長短에 대한 처리는 東國正韻의 漢字音 처리와 아주 흡사한 면이 있다. 즉, 東國正韻 序文을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上去無別” 즉 上聲과 去聲의 구별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本文에서는 上聲에는 무조건 2점을, 去聲에는 무조건 1점을 찍어서 現實音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平聲과 入聲에 대해서는 東國正韻에서 平聲은 모두 0점, 入聲은 모두 1점을 적었는데 이것은 一面의 眞實을 반영하고 있다. 즉, 平聲은 대부분이 0점으로, 入聲은 대부분이 1점으로 나타나지만, 일부분의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金永萬, 1967a 참조).

池錫永이 긴 소리를 ‘높다’고 한 것은 오래된 우리의 관용어에서 온 것으로, 仄聲(측성, 上去入聲)字에 대해서는 ‘높은 字’ 平聲字는 ‘낮은 字’라고 불렀던 것인데 仄聲字의 주류인 上去聲의 대부분이 길게 소리나니까, 긴소리를 ‘높은 소리’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金永萬, 1972/1987 참조).

池錫永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超分節音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

7) 왜냐 하면 현대 漢字音에서 平聲과 入聲은 95%가 短音이고 上聲과 去聲은 80%가 長音이기 때문이다(金永萬, 1987:108-111/1999:178-184 참조).

고 있지만 중세국어의 超分節音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드물었다.

긴소리를 ‘높은 소리’라고 하는 오래된 관용은, 본격적으로 현대 언어학에 접할 수 있었던 周時經 등에 의해서 바로잡아졌다. 周時經은 <國語文典音學>에서 中世國語 문헌의 聲點이 音長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2점(上聲)을 긴소리의 반영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中部方言에 高低가 없기 때문에 거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가 장단을 세 단계로 나눈 것은 음운론의 차원에서 보면 매우 추상적인 것이다. 음성적으로는 길이의 정도가 세 단계보다 더 세분할 수도 있지만 변별적인 것은 長音과 短音의 두 가지 뿐이다.

III. 최현배의 長短-高低 배합 記述의 吟味

周時經에 이어 崔鉉培는 <우리말본(1954:96)>에서 국어의 超分節音에 대하여 대단히 시사적(示唆的)인 記述을 했다. 그는 국어의 ‘길이’에 대해서 周時經과 같이 “짧은소리” “예사소리” “긴소리”⁸⁾로 나누었는데, 그 밑에 注를 달아 ‘높은가락’ ‘가운데가락’ ‘낮은가락’이라고 하여, 長短에 高低(가락)를 결합시킬 뿐 아니라, 또 그 앞에는 각각 ‘앞낮고 뒤높은’ ‘평한’ ‘앞높고 뒤낮은’이라는 한정어를 붙여 그 특징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고, 예로 든 단어들을 보면 “짧은소리”는 中世國語의 0점(平聲)에, “예사소리”는 1점(去聲)에, “긴소리”는 2점(上聲)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최현배(우리말본)의 초분절소

- ㄱ. 짧은소리 : (앞 높고 뒤 낮은) 높은가락 : 말(馬) 배(梨) 달다(甘) ← 0점(平聲)
- ㄴ. 예사소리 : (평한) 가운데가락 : 말(斗) 배(船) 달다(懸) ← 1점(去聲)
- ㄷ. 긴소리 : (앞 낮고 뒤 높은) 낮은가락 : 말(言) 배(倍) 달다(熱) ← 2점(上聲)

8) 원문에는 “긴 소리” “예사소리” “짧은소리”의 순서로 되었지만 설명의 편의상 여기서는 정반대로 나열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그 관찰의 소상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高低와 長短뿐 아니라 그 앞뒤의 환경까지 다 담았다. 여기에는 몇 개의 方言을 다 담고 심지어는 通時的인 면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이것은 우리에게 國語 超分節音에 대한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慶尙南·北道 방언과 中世國語 超分節音素는 여기 ‘ㄱ, ㄴ, ㄷ’의 세 가지로 뚜렷이 구분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 세 가지는 비교의 편의상 “꽃類(ㄱ), 풀類(ㄴ), 별類(ㄷ)”로 부르기로 한다.⁹⁾ 각각의 동아리에서 들어 놓은 單語들의 超分節音으로 보아 ‘꽃(꽃)’은 ㄱ의, ‘풀(풀)’은 ㄴ의, ‘별(별)’은 ㄷ의 超分節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分節音을 가진 ‘말, 배, 달다’가 어떤 길이로 또는 어떤 높이로 발음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中世國語와 慶尙南北道에서는 의미가 각각 ㄱ. ‘馬, 梨, 甘’; ㄴ. ‘斗, 船, 懸’; ㄷ. ‘語, 倍, 熱’로 달라져서 이른바 “最小對立의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中世國語 문헌에서 이들을 각각 ㄱ. 0점(平聲); ㄴ. 1점(去聲); ㄷ. 2점(上聲)으로 구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崔鉉培 선생은 국어 超分節音 연구에도 선구자라 할 수 있다. 許雄(1955)도 여기에서 암시를 받아서 中世國語와 慶尙道(慶南) 방언의 超分節素를 비교함으로써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한 것이다.

반면에 그 내용을 뜯어보면 記述상 문제가 많다.

첫째로 長短에 의해 세 가지로 구분하였지만 어느 방언도 장단에 의하여 세 가지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즉 음운론적 변별성이 없다. 우선 慶南 방언은 아예 장단은 변별적 자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許雄, 1955; 金永萬, 1966/1987), 西部諸方言과 慶北방언에는 長短에 의한 구분은 두 가지밖에 안 된다. 즉, 西部와 慶北에서는 ‘짧은소리(ㄱ)’와 ‘예사소리(ㄴ)’가 구분되지 않는다. 즉 꽃류(ㄱ)와 풀류(ㄴ)가 다 ‘짧은소리’이고 별류(ㄷ)는 ‘긴소리’다. 이

9) 이 단어들은 中世國語에서 각각 0점(平聲), 1점(去聲), 2점(上聲)에 해당되며 慶尙南北道 방언에서도 위 표에 들어놓은 단어들과 같은 超分節音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방언간의 비교와 現代國語와 中世國語의 超分節素를 비교할 때 편리하다.

처럼 <우리말본>에서는 변별적 자질을 밝혀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音韻論의 인 기술이 되지 못한 것이다

둘째로 그러나 慶北의 경우를 보면 꽃류와 풀류와 벌류의 세 가지가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 구분은 長短만으로는 안 되고 高低의 자질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金永萬, 1987 참조). 그런데 <우리말본>에는 고저에도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경북에는 高低가 두 가지밖에 없다. 즉 慶北에서는 ㄴ, '가운데가락'과 ㄷ, '낮은 가락'의 구분이 없이 다 '가운데가락' 또는 '낮은가락'이며,¹⁰⁾ 이것이 '높은가락'과 대립된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長短에서는 ㄱ과 ㄴ이 구분되지 않는 데 반해 高低에서는 ㄴ과 ㄷ이 구분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에 高低에서도 長短과 같이 ㄱ과 ㄴ이 구분 안 된다면 慶北방언도 세 가지 超分節音을 갖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도 <우리말본>이 변별적 자질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끝으로 長短의 구별이 전혀 없는 慶南 방언이 세 가지 超分節音素를 갖게 된 것은 고저가 셋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말본>이 高低에 대하여 세 가지 구분을 설정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慶南 방언을 위하여서만 설정한 것처럼 되어 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崔鉉培 <우리말본(1954:96)>의 長短과 高低 기술은 국어의 超分節音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것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말본>에서는 국어 超分節音은 高低와 長短의 두 자질이 混在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러 가지로 결합하여 변별적인 超分節音素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중에는 慶南 방언과 같이 高低만으로 세 가지 초분절음소를 이룬 경우도 있지만, 서울(西部)의 경우와 같이 長短만으로 두 가지 超分節音素를 이룬 경우도 있는가 하면; 慶北 방언과 같이 高低와 長短의 두 資質이 결합하여 세 가지 超分節音素를 이룬 경우도 있다. 또 中世國語의 경우는 세 가지 超分節音素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資質이 그것을 구성하고

10) 두 가지로만 구분되니 '낮은가락'이라 해도 변별은 된다. 다만 필자는 慶南 방언과의 비교를 위하여 '가운데 가락'쪽을 택한 것이다.

있는지에 대해서 초기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長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충분한 연구를 거쳤다고는 볼 수가 없고, 반면에 高低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것이 “聲調論”이며 다음 章부터 살펴 보게 될 것이다. 筆者는 中世國語가 高低와 長短의 두 資質이 결합하여 된 것으로 보았다(金永萬,1987).

<우리말본>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 기술이 명쾌하지는 못하다. 표면상으로 보면 長短을 주요 辨別資質(변별자질)로 삼고 高低를 附隨的 資質 또는 剩餘資質(잉여자질)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것을 밝힐 이론적 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대적 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국어 超分節音에 대해 초기 生成音韻論 초기에 音素(分節音素)가 변별적 자질의 묶음이라는 생각을 超分節音에 도입하여 超分節音素도 高低와 長短의 묶음으로 설명하였으나(金永萬,1987), 학계에서는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말본>이 나을 당시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데도 최현배 선생이 長短에다가 어찌 보면 군더더기 같은 高低를 ‘앞낮고 뒤높은’과 같은 상세한 정보까지 담아 놓았다는 것은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다.

IV. “聲調”論

일제 말기인 1940년대에 우리말의 超分節素는 현대 言語學을 공부한 日本 학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小倉進平(1944)은 慶尙道 방언과 全羅道 방언에 액센트가 있다고 하였고, 河野一郎(1951)은 15세기 諺解訓正의 四聲注와 方言의 자료를 근거로 中世國語는 聲調言語였을 것이라는 假說을 내 놓았다.

許雄(1955)은 中世國語 문헌의 傍點과 慶尙道(실은 慶尙南道) 방언을 비교하여 0점(平聲)은 高調와, 1점(去聲)은 中調와, 2점(上聲)은 低調와 규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확인하고, 中世國語는 0점(平聲)은 低調, 1점(去聲)은 高調, 2점(上聲)은 上昇調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방점이 長短의 표시라는 周時經의 주장을 비판함으로써, 中世國語가 聲調言語라는 說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

러면서도 許雄(1955)은 이 논문에서 中世國語, 다시 말하면 15-16세기 文獻語와 慶尙道(慶南) 방언은 원래 다른 高低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왜냐 하면 현재 경상도 방언은 꽃류(0점-平聲)가 높고 풀류(1점-去聲)는 낮는데 四聲注에는 中世國語는 그 반대로 꽃류가 낮고 풀류가 높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諺解訓正의 四聲注의 ‘平聲은 못갓갓소리라’ ‘去聲은 못노꾼소리라’ ‘上聲은 처서미 갓갓소리라’ 한 것을 당시의 超分節音의 객관적 記述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국어 超分節音 연구는 “聲調” 시대로 들어갔다. 1950년대 後半부터 1960년대, 70년대는 “聲調” 연구의 전성기였다.

그리하여 국어학계에서는 中世國語와 慶尙道 방언의 이른바 “聲調(성조)”를 연구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 바람에 開化期와 일제 초기에 관심이 높았던 長短의 연구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우리말에는 長短은 없고 高低만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長短 연구는 외면 당하였다. 더구나 許雄(1955)에서는 “慶尙道 말”에는 高低만 있고 長短은 없으며, 서울말에는 長短만 있고 高低는 없다는 것과 對比하여 여러 번 강조하였기 때문에, 慶北 방언에는 長短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許雄 선생 자신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그 후에 慶北 방언에는 慶南 방언과는 달리 長短도 있고 高低도 있다는 論文이 나왔는데도(文孝根, 1962, 1963), 사람들은 慶尙道 방언의 超分節音韻에 대해 말할 때는 慶北 方言에 대해서도 으레 “聲調”라는 이름을 붙인다. 高低, 長短을 기술하면서도 方言의 超分節音 연구에서는 모든 것이 “聲調”라는 이름으로 통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中世國語는 聲調言語였다”는 선언과 함께 “聲調”의 붐이 일어났는데 그 배경에는 諺解訓正(언해본 훈민정음)의 四聲注가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傍點은 長短의 표시로만 알았는데 1950년대에 河野와 許雄의 논문이 나오고부터는 四聲注가 15세기 당시의 국어 超分節音에 대한 객관적 기술로 보아, “平聲은 낮은 소리, 去聲은 높은 소리, 上聲은 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라는 말은 15-6세기의 超分節音 記述의 金科玉條로 회자(膾炙)되었다.¹¹⁾

11) 다만 上聲이 ‘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

그리하여 方言의 高低를 연구할 때도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四聲注가 말하는 바 꽃류가 낮고 풀류가 높으며 별류가 上昇調인 증거를 찾는 데 열중하는 경향이 많았다. 許雄(1955)에서 慶南방언과 四聲注가 高低에서 반대인 것을 보고 실망한 이들 중에는 慶南 방언의 별류(低調)를 上昇調라 하면서 四聲注의 上聲과 맞추고, 慶南 방언도 중세에는 高低가 四聲注와 같이 꽃류(0점-平聲)가 낮고 풀류(1점-去聲)가 높았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낮던 꽃류가 높아지고 높던 풀류가 높아져 高低가 逆轉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이도 있었다. 그만큼 四聲注를 현대 方言에서 다시 보고자 하는 열정은 높았고 四聲注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그러한 행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가 Ramsey(1973)가 慶南 방언과 高低가 정반대로 보이는 咸鏡道 方言에 대한 보고를 하자 이제야 四聲注의 말이 입증되었다고 학계는 환성을 질렀다. Ramsey는 그러면서도 咸鏡道 方言은 聲調言語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 高低 현상은 高低 액센트(pitch accent)라고 하였다. 咸鏡道 방언은 複音節語에서 어느 한 音節을 높게 발음하는데 그것은 필자가 말하는 慶尙道 방언의 O형과 비슷한 것이다. 그런데 咸鏡道の 액센트 核은 맨 앞에 오는 去聲 또는 上聲에 핵이 놓이고, 慶尙道の O형은 平聲으로 시작하여 몇 개의 平聲이 계속 되는 平聲의 끝, 다시 말하면 休止나 去聲(또는 上聲) 바로 직전의 平聲에 核이 온다. 따라서 慶尙道 방언의 액센트 핵은 함경도 方言의 그것보다 한 音節 앞선다. ‘까마귀(가마·귀)’는 중세국어에서는 방점이 0-0-1 즉 平平去로서 慶尙道에서는 둘째 음절 ‘-마-’를 높게 발음하지만, 함경도에서는 셋째 음절 ‘-귀’

략하고, 다만 그만큼 四聲가 중시되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넘어가려 한다.

이리하여 中世國語의 超分節音 究明을 위하여 慶尙道 방언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聲調”론이 Ransey(1973) 이후에는 咸鏡道 방언쪽으로 초점이 옮겨 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慶尙道 방언, 특히 慶北 방언 超分節音에서 四聲注에 맞는 超分節素를 찾으려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慶尙道 방언에서 平聲(平聲)가 높고 去聲(去聲)가 낮다는 기존의 定說을 뒤엎고 그 반대로 平聲(平聲)는 낮고 去聲(去聲)는 높다고 주장하는 한편, 평탄한 長音인 慶北 방언의 ‘별’을 “앞은 낮고 뒤는 높은 소리”(上昇調)라고 주장하면서 오늘의 慶北 방언을 바로 四聲注의 “平=低, 去=高, 上=昇”에 맞추려 하고 있다.¹²⁾ 여기에서도 四聲注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四聲注를 잘 잘 살펴 보면 그것은 우리 現實音에 대한 기술이 아니다. “平聲, 上聲, 去聲, 入聲”이라는 聲韻學 術語를 쉬운 國語로 풀어 보려는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 그것은 諺解正音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諺解正音은 五音의 경우 “牙音→엄소리, 舌音→혓소리, 脣音→입시울소리, 齒音→닛소리, 喉音→목소리”와 같이 번역하였는데(이것을 ‘五音注’라 하자), 이것은 漢字 ‘牙, 舌, 脣, 齒, 喉, 音’을 한 字 한 字 직역한 것에 불과하고 소리의 자질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四聲注도 超分節素, 특히 國語의 그것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다만 五音의 경우는 ‘牙·舌·脣·齒·喉’ 그 자체가 옛날 漢인들이 우리 인간의 調音器官의 이름을 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역하기만 해도 漢語든 國語든 調音 資質(위치)에 대한 정보가 희미하게나마 들어 있다. 예를 들면 脣音과 喉音의 경우는 바로 그 調音 기관을 가리킨 것이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고, 牙音의 경우는 어금니가 직접 調音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어금니쪽 즉 後舌에서 調音되니까 조음 위치를 간접적이거나 보여 준다.

12)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金永萬(2000:5-6)에서 논한 바 있고 뒤에도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超分節音의 경우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典型的인 聲調言語의 하나인 漢語를 대상으로 지은 이름이 그대로 우리의 超分節音을 나타낼 수 없다. 물론 四聲注는 五音注처럼 漢字를 逐字譯(촉자역)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平·上·去·入’도 옛날 中國 聲調의 어떤 면을 반영하였을 것은 짐작이 간다.¹³⁾ 따라서 “平·上·去·入聲”을 번역한 四聲注에도 옛 中國의 四聲의 특성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가령 平聲의 ‘平’은 ‘平地, 平野’에서 보는 것처럼 ‘평평하다’는 뜻이니 우뚝한 高山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으니 ‘낮은 소리’ ‘낮은 자’라 하는 것도 글자의 뜻과 무관치 않고 성조 자체도 평평한 것도 사실이다. 上聲의 ‘上’에는 ‘위, 높다, 올라가다’의 뜻이 있으니 ‘처음은 낮고 나중에 높다’고 번역할 수 있고 이것이 漢語 上聲의 實質과 통한다. 따라서 平聲 上聲이 우리 말 超分節音을 관찰 기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去聲과 入聲의 명칭이 생긴 이유는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¹⁴⁾ 四聲注에서 去聲을 ‘높은 소리’라고 한 것은 平聲을 ‘낮은 소리’라고 한 것과 상대가 되는 것으로 平·仄(평측)을 우리말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중국의 聲調는 四聲으로 가르는 경우도 있지만, 平·仄(평측)으로 兩分하는 경우도 있다. 平·仄(평측)은 ‘平音’과 ‘仄音(측음)’ [또는 平聲과 仄聲(측성)]으로 가르는데 平聲은 ‘平音’에 속하고 上·去·入聲은 ‘仄音(측음)’에 속한다. 平仄은 詩作에서는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지식인들은 ‘平音’에 속하는 글자를 ‘낮은 자’라 하고 ‘仄音’에 속하는 글자를 ‘높은 자’라 했다. 그러나 이 ‘높다, 낮다’는 우리 음에서 낮다는 뜻이 아니다. 平聲을 ‘낮은 소리’, 去聲을 높은 ‘소리’라고 한 것은 ‘平仄’과 관계 있는 것이다. ‘平·仄’에 대해서는 우리말 譯語가 있었지만 ‘平·上·去·入聲’에 대한 뚜렷한 譯語가 없었기 때문에 ‘平仄’에서 쓰는 ‘높은, 낮은’

13) 다만 ‘平·上·去·入’ 이 네 글자 자체의 聲調도 各各 ‘平聲·上聲·去聲·入聲’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14) 去聲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去’가 ‘사라져 감’을 뜻한다고 볼 때 처음에는 높다가 되는 낮아지는 소리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한편 “平·上·去·入”이라는 글자는 그 뜻이 각각 그 성조소를 가졌다는 사실 말고도 글자 자체의 소리가 각각 平聲, 上聲, 去聲, 入聲을 가진 글자라는 것도 참고하여야 한다.

을 이용하여 四聲의 譯語를 만들었 것이다. 여기서 平音에 대해서는 平聲 한 가지 뿐이니까 平聲을 낮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仄聲에 대해서도 入聲은 문제가 안 되고 去聲에 대해서는 ‘못’이라는 限定語를 붙여서 ‘못노퐁 소리’라 하고 上聲은 ‘쳐서미 늦감’다를 限定詞를 붙여 ‘쳐서미 늦감고 乃終이 노퐁 소리’라고 차별화한 것으로도 보인다. 平聲의 譯語도 ‘못노퐁’이 붙었지만 그것은 去聲의 ‘못노퐁’의 대칭이라 봐야 할 것이다.

四聲注가 당시 우리말의 超分節音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은 漢字音 四聲의 歸化 양상에서도 나타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漢字音 四聲의 國音化(土着化)에서 上聲과 去聲은 똑 같이 80%는 별류로, 15%는 풀류로 갔다. 그런데 漢語가 옛날부터 上聲은 上昇調, 去聲은 下降調라는 것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四聲注에서 上聲을 ‘앞 낮고 뒤 높은 소리’ 즉 上昇調라고 한 것은 漢語를 두고 말한다고 본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만약 우리말 별류가 上昇調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별류는 중국어의 上聲과는 비슷하고 중국어의 去聲과는 반대다. 따라서 上聲의 별류 歸化率은 去聲의 그것보다는 월등히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上聲, 去聲의 별류 歸化率은 똑 같이 80%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별류가 上昇調(앞 낮고 뒤 높은 가락)가 아니라는 것을 反證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것은 또 우리말에는 上昇調도 없었을 뿐 아니라, 下降調도 없었다는 것을 反證한다고 봐야 한다. 만약 下降調가 있었다면 역시 下降調인 漢字 去聲이 그 쪽으로 몰려서 균형이 깨어졌을 것인데 그런 일이 없이 똑 같이 별류 쪽으로 80%, 풀류 쪽으로 15%가 갔다.

이런 여러 점으로 보아 四聲注는 우리말의 高低를 寫實的으로 記述한 것이 아니라 四聲을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연구자들이 四聲注에 의해서 우리말에는 옛날부터 高低만 있고 長短의 구별은 없는 것처럼 착각하여 高低에만 집착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할 일이다. 이 방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서울 말(西部諸方言)을 두고 “聲調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長短으로 바뀌었을까?” 하고 놀라와 한다.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역사에 흥미를 가진다. 國語史에 관해서도 中世國語는 聲調言語라는 말에 흥분한 사람들이 聲調(高低)가 長

短으로 변한 사실에 흥미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서울말의 長短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생긴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말의 長短은 高低와 함께 그 뿌리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는 方言의 비교에서 그런 것을 實感할 수 있다.

超分節音의 面에서 필자는 일찍부터 거칠게나마 西部諸方言과 咸鏡, 慶南, 慶北으로 나누어 보았다.¹⁵⁾ 알다시피 현재는 이 중 西部에는 長短만 있고 高低는 없으며, 咸鏡, 慶南은 高低만 있고 長短은 없다. 옛날부터 東部에는 高低만 있었고, 西部에는 長短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東部에서도 咸鏡과 慶南의 사이에 끼어 있는 江原 東南地域(三陟, 東海)과 慶北에는 長短이 있으며, 全羅道에도 高低가 있는 것이 김차균 교수의 조사로 밝혀졌다. 이것으로 보아 과거 어느 시기에는 西部에도 高低가 있었고 東部에도 長短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中世國語와 현대 각 방언을 연관시켜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아주 흥미진진한 사실을 발견한다. 필자는 중세국어 문헌에서 0점(平聲)으로 나타나는 것을 “꽃류”, 1점(去聲)으로 나타나는 것을 “풀류”, 2점(上聲)으로 나타나는 것을 “별류”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각방언의 高低, 長短을 살펴보면 慶南과 慶北은 꽃류와 풀류와 별류의 세 가지가 다 있지만 西部와 咸鏡은 각각 두 가지만 있고 있어서 세 가지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데 그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 양쪽이 아주 대조적이다. 즉 長短만 있는 西部에서는 꽃류와 풀류가 합쳐져서 短音이 되고 별류는 長音이 되었다. 이와 반대로 高低만 있는 咸鏡 방언은 꽃류는 독립적으로 低調가 되고 풀-별류는 합하여 高調가 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그 이전(中世 또는 古代)에는 우리말의 超分節音에서 꽃류와 풀류와 별류의 구분이 다음과 같은 자질(feature)의 대립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9) 中世國語 이전의 高低 長短에 대한 推論

15) 그러나 이것은 필자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데는 드물고 더구나 全羅, 平安 쪽은 따로 떼야 할 것인데 게으른 탓으로 조사가 미진하여 西部諸方言으로 묶어 버린 것은 깨닫는다.

ㄱ. 꽃(0점)·풀(1점)과 별(2점)은 長:短으로 대립된다.

ㄴ. 꽃(0점)과 풀(1점)·별(2점)은 高:低로 대립된다.

그런데 “꽃-풀”과 “별”이 長:短으로 “꽃”과 “풀-별”이 高:低로 대립하는 현상을 함께 가진 方言이 있다. 慶北 方言이 그것이다. 즉, 慶北 方言은 長短面에서는 ‘꽃-풀’과 ‘별’이 대립되어 서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高低에 있어서는 ‘꽃’과 ‘풀-별’이 대립되어 咸鏡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절묘한 대응 관계를 보여 준다. 이것을 高低(높이) 長短(길이)에 대한 자질(資質)의 값(價)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0) 慶北方言 세 운소의 자질

語類(韻素)	높이(H)	길이(L)
꽃 (O)	+	-
풀 (U)	-	-
별 (W)	-	+

위의 표를 보면 앞에서 말한 崔鉉培의 <우리말본(1954:96)>과 비교해 보면, <우리말본>은 超分節音素(韻素)의 이름은 長短에 의하여 “짧은소리, 예사소리, 긴소리”로 붙여졌으나, 그것은 韻素 이름이기도 하고 資質이기도 한 것이고, 그 자질은 長短만으로는 안 되고 高低도 있어야 하는 좀 혼란스러움을 보이고 있었다. 만약 慶北 方言을 기술하려 할 때도 최현배 선생의 방법으로 하던 역시 그렇게 복잡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韻素 이름은 ‘긴소리’나 ‘높은가락’이니 하는 자질과는 다른 어떤 것(O, U, W 등)으로 정해 놓고 그 韻素가 어떤 “資質의 묶음”인가를 살펴서 그것은 그것대로 기술하면 저와 같이 명쾌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慶北 方言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한 方言의 모습이 아니고 중세국어 또는 그 이전의 超分節音의 고찰에서 高低와 長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를 던져 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같은 嶺南에 속하는 慶北과 慶南은 다같이 中世國語의 세 韻素

가 그대로 구별될 뿐 아니라 ‘꽃’과 ‘풀’은 같은 자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별’에 대해서는 慶北은 長音으로, 慶南은 低調로 실현되고 있어 방언간에 高低와 長短의 대립을 보여 준다. 국어의 超分節音韻論은 高低와 長短의 交織(교직)으로 전개된다. 하나의 예로서 慶北 방언에서 ‘꽃, 풀, 별’의 超分節素를 살펴 보기로 하자.

경북 방언의 “꽃, 풀, 별”은 長短, 高低의 어느 한 쪽만으로는 완전한 변별이 안 되지만 두 자질을 한 데 묶어서 보면 완벽한 세 韻素(운소)의 鼎立(정립) 체계를 드러낸다. 이것은 分節音韻論에서 하나의 音素가 자질들의 집합이라고 보는 관점과 같다. 예를 들어 母音의 音素는 혀의 위치에 따른 前·後, 高·低와 緊張·弛緩, 圓脣平脣 등 여러 변별적 자질로 이루어진 것과 비슷하게 ‘꽃’은 /O/ [+高, -長]; ‘풀’은 /U/ [-高, -長]; ‘별’은 W [-高, +長]와 같은 세 韻素가 설정된다. 나의 이런 분석, 기술 방법은 生成音韻論의 변별적 자질 및 複線音韻論과도 연결된다.

V. 중간 맺음

원래는 세 章을 더 쓰고 結論을 쓰려고 하였으나 사정상 그 세 章은 다음으로 미루어야 하게 되었기 몇 마디로서 이 글은 끝내고 2부에서 종합 결론을 내리려 한다.

제목의 뒷 부분이 ‘通時態와 共時態’라 한 것은 필자의 경험으로는 國語 超分節音韻論은 通時態와 共時態를 오가며 고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중세와 현대 그리고 방언간을 연결하고 비교하는 데는 “꽃류, 풀류, 별류”라는 語類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中世國語와 現代國語, 그리고 현대 각 방언 간에는 超分節音素의 數도 차이가 있고 각 超分節音素를 이루는의 자질도 서로 다르지만 그런 것을 초월하여 하여 비교할 때 편리하다.

국어 超分節音韻論의 共時的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韻素(超分節音素)와 그 資質을 확실히 구분하고 그 유기적 관계를 정당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거기서 音素는 변별적 자질의 묶음이라는 생성음운론의 발상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초분절 자질도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하나의 음소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국어의 초분절음을 분석 기술하는 데는 장단과 고저의 두 자질을 한데 묶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하는데 초기의 연구자들은 장단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와는 반대로 근래의 연구에서는 이른바 聲調의 이름으로 고저만에 집착한 점은 반성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중세국어의 경우는 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종래에는 오자를 바로잡는 수준의 연구는 있었으나 앞으로는 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四聲注를 당시 우리 초분절음에 대한 기술로 보고 그 합리화에 바쁘고 당시의 문화 환경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방점을 보는 눈도 너무 교조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거기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한다.

VI. 附錄

(1) 중세국어 單音節語의 語類

(1-a) ‘꽃’類 (0점 [θ])

갓(物) 갓(妻) 갓(皮) 갓(物) 갓(表) 갓(腋) 갓(傍) 꽃(花) 꿩(雉) 그(其) 갓(柱)
 낫(稅) 낫(生) 낫(獵) 낫(顔) 낫(魂) 낫(脅) 노(繩) 낫(兆) 닻(楫) 단(錠) 닭(鷄)
 닻(닻) 더(廷) 덕(棚) 동(糞) 독(瓮) 돌(猪) 등(背) 덜(陶) 몰(伯) 몰(馬) 몰(便)
 목(頸) 뭉(分) 뭉(束) 물(陸) 밋(胎) 밋(餌) 밑(底) 볼(腕) 밖(外) 밭(田) 락(梨)
 벼(稻) 별(陽) 썩(桑) 복(梭) 뭉(培) 뭉(種) 빈(價) 싣(賃) 솟(針) 샛(席) 솟(雞)
 살(簞) 섬(薪) 손(客) 술(鼎) 쇼(俗) 술(酒) 숯(炭) 숲(林) 싣(欄) 앞(前) 옷(漆)
 우(上) 짝(配) 저(自) 조(粟) 족(片) 쪽(藍) 집(家) 초(醋) 콩(菽) 팔(腕) 흙(土)
 활(弓)

[이상 78 개]

(1-b) '줄' 類 (1점 [I])

·근(鹵) ·간(分) ·간(冠) ·굴(藁) ·갈(刀) ·굴(重) ·값(價) ·갓(冠) ·개(浦) ·배(荏)
 ·각(梨) ·거(藪) ·결(波) ·겁(重) ·겉(訣) ·겉(紉) ·겉(訣) ·고(鼻) ·곤(鵠) ·곧(處)
 ·술(藪) ·곰(膏) ·곳(串) ·곳(串) ·괴(策) ·굴(坑) ·굴(觸) ·활(蜜) ·꿈(夢) ·굽(蹄)
 ·귀(耳) ·쁘(時) ·빨(鑿) ·금(理) ·틈(隙) ·글(末) ·때(時) ·긴(竿) ·길(道) ·틈(隙)
 ·깃(集) ·깃(衿) ·깃(分) ·나(我) ·나(年) ·낚(釣) ·날(鍊) ·날(日) ·늘(經) ·늘(刀)
 ·납(鉛) ·낫(晝) ·니(煙) ·내(臭) ·논(菰) ·능(奴) ·늦(鎗) ·누(誰) ·눈(目) ·누(誰)
 ·니(齒) ·니(蟲) ·늪(葉) ·차(地) ·단(束) ·돌(月) ·똥(女) ·줄(源) ·줄(女) ·담(垣)
 ·땀(汗) ·대(竹) ·때(時) ·떡(時) ·명(輦) ·씩(解) ·덜(時) ·더(彼) ·덜(寺) ·떡(蔑)
 ·되(升) ·튀(茅) ·뒤(茅) ·뜻(意) ·뜸(灸) ·띠(帶) ·띠(輪) ·뎡(藁) ·마(著) ·만(貝)
 ·물(藻) ·말(斗) ·말(木) ·맛(味) ·매(磨) ·매(鞭) ·딕(野) ·면(奈) ·멧(奈) ·멧(蔑)
 ·모(角) ·몰(釘) ·몸(身) ·못(池) ·괴(食) ·물(衆) ·물(水) ·밀(麥) ·바(所) ·박(匏)
 ·발(足) ·불(翼) ·불(골) ·불(件) ·밤(夜) ·쌈(頰) ·밥(食) ·바(腹) ·비(舟) ·뼈(骨)
 ·벼(禾) ·벽(掌) ·보(犁) ·봄(春) ·붓(桴) ·뵈(布) ·뿔(角) ·뽀(鼓) ·뵈(帶) ·불(火)
 ·불(膠) ·비(雨) ·빗(梳) ·빛(光) ·살(輻) ·살(矢) ·쌀(米) ·술(肌) ·새(新) ·서(椽)
 ·췌(轡) ·섬(斛) ·손(手) ·솔(松) ·쇠(鐵) ·소(牛) ·수(雌) ·췌(蒿) ·술(匙) ·쉬(禾)
 ·숯(藪) ·배(種) ·씨(緯) ·신(鞋) ·안(內) ·알(卵) ·알(縫) ·앗(由) ·열(十) ·엿(飴)
 ·온(百) ·옷(衣) ·울(簾) ·웁(穴) ·입(口) ·익(告) ·익(門) ·자(尺) ·중(眠) ·죽(城)
 ·재(坂) ·작(灰) ·지(嶺) ·질(拜) ·짓(醢) ·젓(乳) ·줌(囊) ·줄(繩) ·줌(握) ·쥐(鼠)
 ·질(馴) ·짐(荷) ·깃(羽) ·깃(羽) ·출(源) ·춤(眞) ·채(策) ·채(蹄) ·춤(舞) ·춤(唾)
 ·춤(葛) ·코(鼻) ·키(長) ·키(箕) ·꼭(頸) ·터(基) ·테(等) ·꼭(肘) ·톱(爪) ·톱(鎬)
 ·틀(型) ·틀(機) ·틈(隙) ·띠(塵) ·풀(蠅) ·풀(豆) ·풀(糊) ·풀(草) ·피(血) ·피(穫)
 ·히(日) ·혀(舌) ·혹(贅) ·홈(槽) ·화(炬) ·힘(力)

[이상 216개]

(1-c) '별' 類 (2점 [II])

·감(柿) ·갸(邊) ·결(渠) ·게(蟹) ·골(谷) ·골(管) ·곰(熊) ·괴(貓) ·길(丈) ·깁(糲)

:난(倅) :난(粒) :내(川) :널(板) :네(四) :네(昔) :눈(雪) :뒤(世) :님(主) :달(蘆)
 :돈(錢) :돌(石) :돌(梁) :되(戎) :둘(二) :뒤(後) :매(鷹) :멸(蔑) :되(山) :말(言)
 :밀(蠟) :발(簾) :발(托) :밤(栗) :벌(友) :벌(蜂) :범(虎) :별(星) :봄(甁) :새(鳥)
 :새(草) :심(泉) :섬(島) :세(三) :세(縱) :속(內) :술(刷) :숨(內) :숨(息) :선(50)
 :실(絲) :애(腸) :양(胃) :엄(牙) :음(癰) :외(과) :일(事) :장(佛臺) :잣(柏) :증(증)
 :종(奴) :줄(鱗) :중(僧) :쫓(貌) :틸(緣) :똥(笊)

[이상 66 개]

위의 목록에 의하여 각 단어군의 분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¹⁶⁾.

- (2) a. 꽃類(0점, 0) 78개 (22%)
 b. 풀類(1점, 1) 216개 (60%)
 c. 별類(2점, 11) 66개 (18%)

d. 계 360개

주제어 : 국어 초분절음, 초분절소, 장단음, 고저음, 성조,

16) 漢字語 중에도 완전히 우리말이 된 것도 있다. 이것들도 세 가지 단어군으로 나눌 수 있다. 일간의 예를 들어 둔다.

[꽃류] 금(金) 기(旗) 문(門) 모(苗) 방(房) 신(神) 장(場) 정(情) 침(針)

[풀류] 구(九) 기(氣) 낙(樂) 덕(德) 독(毒) 득(得) 벽(壁) 분(粉)

[별류] 군(郡) 면(面) 배(倍) 병(病) 분(忿) 운(運) 원(願) 화(火)

이들은 어원은 漢字(漢語)에서 왔지만, 우리말이 되어서는 뜻 또는 음까지도 중국과는 달라진 것이 있다. 예컨대, “모(苗) 신(神) 장(場) 분(粉) 화(火)”가 그것이다. “모내기, 신난다, 장날, 분바른다, 화난다”를 생각해 보라.

참고 문헌

- 金武植(1992). 경북방언 超分節素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國語學 22.
- 金星奎(1994). 中世國語의 聲調 變化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博士學位論文)
- 金永萬(1966a). 慶南方言의 聲調 研究. 국어국문학 31.
- (1966b). 방점(傍點)과 현대 국어 성조의 비교:경북 방언을 중심으로. 한글 137(64-79).
- (1967a). 이조 전기 한자음의 운율(I·II). 한글 139-140.
- (1967b). 傍點의 本質에 대한 考察:뫼노폰소리는 "high tone"인가? 국어국문학 36.
- (1972). 고금 성조 비교 재론. <한글 149>(pp. 66-76).
- 가.----- (1974a). 방점 표기의 원칙과 성조 변화. 국어국문학 64(79-92).
- 나.----- (1974b). 국어 운율의 본질과 변천: 서울·경북·경남·함경·전라 방언의 비교. 국어국문학 65·66(합본).
- (1986). 國語 韻律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嶺南語文學 13.
- (1987). 國語 超分節音素의 史的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1997). 國語 超分節音素의 共時的 研究. <嶺南語文學> 32 1-47. 嶺南語文學會----- (1989). 형태소 {ㄴ}의 기저 운율(성조)에 대하여. 鄭然榮先生回甲紀念論叢(29-53).
- (1999). 漢文學과 語學研究: 漢詩의 律格과 聲韻學을 중심으로. 慕山學報 第11輯161-186. 慕山學術研究所. 대구.
- 金完鎭(1973/77). 中世國語聲調의 研究. 塔出版社.
- 金周源(1991a). 경상도 방언의 성조-高調의 본질과 중세국어 聲調와의 대응에 대하여. 언어학 13. 75-93.
- 金周源(1991b). 중세국어 성조 기술에 대한 일고찰--이른바 「無聲調 형태소」를 중심으로. 들며서재극마사환갑기념논문집.
- 金次均(1977). 경상도방언의 성조체계.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7). 우리말 성조 연구의 성과와 미래의 방향. 언어 18.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 南廣祐(1964). 東國正韻 漢字音 聲調의 研究. 中央大論文集
- (1968). 李朝漢字音 研究. 東亞出版社.
- 文孝根(1962). 大邱方言의 高低長短. 人文科學(연세대) 7.
- 文孝根(1963). 傍點本質의 再檢討 : 高低長短의 主張. 東方學志(연세대) 7.
- (1974). 韓國語 聲調의 分析的 研究. 世宗出版公社.
- 李基文(1960). 「소학언해에 대하여. 한글 127.
- 李基文(1961). 國語史概說(pp.119-122). 民衆書館.
- 李基文(1972). 國語史概說(pp.142-143). 塔出版社.
- 李東華(1990). 慶北方言 聲調의 自立分節音韻論的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博
士學位論文.
- (1996). 국어음운론. 문창사. 대구.
- 李崇寧(1964). 十五世紀 活用に 있어서의 聲調의 考察. 《亞細亞研究 7-2》.
- 張泰鎮(1958). 傍點의 機能. 語文學 3.
- (1963). 방점의 연구. 한글 132.
- 鄭然榮(1971). 중세 성조와 경상도 방언성조의 비교. 한글학회50돌기념논문집.
- 鄭然榮(1974/77). 慶尙道方言聲調研究. 塔出版社.
- 鄭然榮(1976).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 一潮閣.
- 車載恩(1997). 15世紀 國語의 聲調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1999). 중세국어 성조론. 도서출판 月印.
- 崔鉉培(1954). 우리말본: 94-104. 정음사.
- 崔明玉(1998). 現代國語의 聲調體系. 國語學 31(23-52). 國語學會.
- 許雄(1955) 傍點 研究. 연세대 《東方學志 2》.
- 小倉進平(1944). 朝鮮方言の研究(下). 岩波書店. 日本 東京.
- 河野六郎(1951). 諺文古文獻의聲點に就いて. 朝鮮學報 第一輯. pp. 93~140.
- 河野六郎(1959). 再び東國正韻に就いて. 朝鮮學報 第十四輯. pp. 443~462.
- Goldsmith, John A.(1976) Autosegmental Phonological Phonology. Doctorial

- dissertation, MIT. Reproduced b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Hyman, Larry M(1975). Phonology.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Lehiste, Ilse (1970). Suprasegmentals. Cambridge, Mass. M.I.T. Press. (金武植, 金太相 번역본 《超分節音素論》 翰信文化社.1991)
Ramsey, S. R.(1973). 咸鏡, 慶尙 兩方言의 액센트 研究. 國語學 2.

※ 이 논문은 2003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5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6월 3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